

코로나 확진자 이틀연속 7천명대... 곳곳 집단 감염

수도권 5500명대, 전체 76.5%
광주 36명·전남 69명 신규 확진
학교·대학병원 등 연쇄감염 여파

수도권에서만 연일 55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면 서 전국에서 이틀 연속 7000명대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7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717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8일에도 7102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의료 체계 붕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에선 연일 1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대학병원, 군부대, 전남도립국악단, 김장모임, 학교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7102명이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49만6584명으로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7082명, 해외유입 20명이다. 최근 1주간(12.3~9)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944명→5352명→5126명→4324명→4954명→7174명→7102명으로 하루평균 약 5568명이다.

수도권이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날 지역 발생은 서울 2785명, 경기 2136명, 인천 49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54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지역 발생의 76.5%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부산 252명, 충남 208명, 경남 192명, 대전 166명, 경북 143명, 강원 138명, 대구 131명, 전북 125명, 충북 91명, 전남 69명, 울산 49명, 제주 48명, 광주 36명, 세종 16명 총 1664명(23.5%)이다.

특히 전남이 기록한 신규 확진자 69명은 지난해



9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설치된 모니터에 전국 코로나 19 확진자 일자별 발생 현황이 안 내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코로나 사태 이래 역대 최다 규모다. 전남에선 9일 오후 2시까지 신규 확진자 45명이 추가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지역별 신규 확진은 무안 12명, 여수 8명, 목포 5명, 순천·함평 각 3명, 나주·고흥·화순·진도·신안 각 2명, 광양·보성·해남·영암 각 1명이다. 확진자에는 전남도립국악단원 6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 주말까지 공연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돼 관람객 등 500명에 대한 진단 검사도 진행 중이다.

광주에선 이날 오후 2시 현재 신규 확진자 27명이 발생했다. 이 중 13명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확진자는 지난 3일부터 증상이

발현됐는데도 일상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 내 연쇄(n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확진자 중 일부는 동구의 모 대학병원, 군부대 훈련병, 노인요양시설, 커피전문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등으로 파악되면서 집단감염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또 기존 감염자 관련 신규 확진자 발생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동구 모 합창단과 북구와 광산구 요양병원, 서구의 모 초등학교와 관련해 각각 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골프모임 관련 감염자도 3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 전환

문광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효기간 삭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며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지역신문법은 2004년 제정 이후 두 차례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해 2022년까지 연장됐다.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했다.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시 경력요건을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역 일간지의 평균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현실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부정한 방법으

로 지원받거나 지정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자에게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기간을 유죄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제재도 강화했다.

황희 문화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여론의 다원화와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 균형발전이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시법이란 문제가 지적돼 온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돼 지역신문 지원이 법제화됐다는 점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언론노조는 아울러 “법에 명시된 제정 취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핵심 조항을 또한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초과생산된 쌀 30만t 즉각 시장 격리하라”

전농 광주전남연맹 민주당 전남도당사 앞에서 야적시위

생산량 초과로 쌀값 폭락을 우려한 전남 농민들이 문제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초과생산된 쌀 30만t을 즉각 시장 격리하라”고 촉구하며 나락 야적시위에 나섰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9일 민주당 전남도당사 앞에 나락 48t(800kg들이 톤백 60개)을 야적하고 “쌀은 물가를 잡는 도구가 아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초과생산물량을 시장격리하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불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민들은 “올해는 태풍 한번 없이 정상 들인 농민의 구슬땀에 보답이나 하든 평년보다 풍작을 이루었다. 전산은 작년 68만t보다 9만t이 많은 77만t을 수확했다”며 “통계청 발표대로 전국 쌀 생산량이 388만t으로 양곡관리법에 따라 초과생산량이 수요량의 3% 이상을 넘었기에 당장 시장 격리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그런데도 물가인상을 핑계로 농민들의 목숨값인 쌀을 희생양상이 담연히 해야 할 시장격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비웃값

농약값 기세값을 비롯하여 각종 농자재 외상값을 갚아야 할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농협 자체 수매에 응하고 있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약 7만3000원 예상)보다 1만원 이상 손해 보며 나락을 출하해야 하는 농민들의 애다는 심정을 문제인정부는 알고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쌀값 하락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방치하고 있는 농림부와 문제인정부 그리고 호남을 표방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은 분노한 전남 농민들의 눈빛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주장한 뒤 “국가의 존립 근간인 농업을 무시하고 쌀값 하락을 물가안정의 희생양으로 삼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역시 “시장 격리를 통해 쌀값 하락을 막고 비료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농민들 주장에 힘을 실었으나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국 인구 올해 첫 감소...인구 정점 8년 앞당겨져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여명 감소...2070년 3766만명 예상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감소하는 현상이 올해 처음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급감한 여파다. 근 50년 뒤인 2070년에는 인구가 1400만명 이상 감소한 3700만명대로 쪼그라들 것이라 비관적인 예상도 함께 나왔다.

◇ 인구 정점 2028년→2020년...8년 앞당겨져=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을 9일 발표했다.

통계청은 올해 총인구가 5175만명으로 2020년 5184만명보다 9만명 줄어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 인구가 정점을 기록한 후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다.

2020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선(-3만3000명)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했으나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감안한 총인구 감소 현상은 올해가 처음이다.

통계청이 2019년 3월에 인구 정점을 2028년(5194만명)으로 전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인구 정점이 8년이나 앞당겨졌다.

◇ 자연감소 규모 증가 전망...2020년 3만명→2070년 51만명=올해는 그 시작일 뿐 인구,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은 앞으로 점차 심화한다.

통계청은 향후 10년간은 인구가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는 자연감소는 이어지겠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 국제 이동이 많으면 인구가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할 수 있는 기간이다.

2030년 인구는 5120만명, 2040년은 5019만명으로 감소세가 비교적 완만하지만 2050년엔 4736만명, 2060년엔 4262만명, 2070년엔 3766만명으로 급감한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50년간 1418



만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4명에서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떨어진 후 2046년에는 1.21명까지 회복될 것이라 가정하여 이런 수치를 산출했다. /연합뉴스

임야 삽니다
3천평 이상
지분환영. 010-6837-4700

덕남동, 임야
지분, 200평
개발호재 다
투자
매-4천만원. 010-3605-50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읍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텔라블루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주택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여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읍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소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 6천5만원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함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용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용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능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홀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무료 大 특강

99% 적중률...누구에게나 속시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제시!!

장 소	3층 김부동산멘토스쿨(힐스테이트 3단지 앞)
일 시	2021.12.9(목), 10(금) 오후2시/ 7시
문의전화	010-5632-5209(사전예약)

※세미나 참석하신분은 1:1투자 상담시 상담료 무료

강/의/내/용

- 1강의 **광주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
 - 꼭 알아야 할 광주 중요지역 분석
 - 3천만원으로 부자될 수 있는 아파트 갭투자
 - 수익형 부동산의 과학적 투자 가치 분석 기법
- 2강의 **“황금 개발지 토지” 성공 투자법 대공개**
 - 광주/전남 지역 내외 “최고 가치” 매물 대 공개
 - 농지법 개정에 따른 필승 농지 투자법 대 공개
 - 소액 토지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 공개
 - 전국 지역 에타면세사업 토지 집중분석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MTN(마투데이)-김정민의 비즈정보쇼 (2017년 우수기업 선정 방송)
(2017년 소프토 채널 확산 한국인 선봉)
(현) 김부동산멘토스쿨 대표
(현) 김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L&A(엘앤에스) 대표
(현) 각종 언론사 및 대학교 초청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300회 이상 강연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연
(현) SMC(에스엠씨) 인턴리포트 발행 기자